

제317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7월18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1

(14시29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14시31분)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오후 1시 15분경 국회가 요구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법으로 보호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단체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5분 비공개회의중지)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서 회의를 다시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지난 7월 15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관련자료 목록에 대한 예비 열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람위원단으로부터 그 열람 경과를 위원회 차원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는 새누리당 황진하 위원님과 민주당 우윤근 위원님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진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 새누리당 열람위원 황진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로 통과가 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에 따라서 임명된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각각 5명으로 구성된 10명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그리고 어제 17일 2차에 걸쳐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제공한 그리고 열람위원들이 추가로 제시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된 문서 목록을 열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 첫날인 15일 여야 위원들은 문서 목록상에 나타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나 녹음기록물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록원 측에 문의

한 결과 제시된 키워드와 고려 가능한 유사 용어들을 모두 이용하고 기록원의 능력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나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람위원들은 그 문건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문건이니 추가 노력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검색어를 추가로 기록원 측에 제공하고 48시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틀 후인 어제 17일 여야 열람위원 전원은 재차 기록원을 방문해서 추가 검색결과까지를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문건이나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은 그러한 문서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끝까지 해당 문건을 찾아본다는 데 동의하고, 단 오늘 운영위에서 이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기록물 보안장치였었던 이지원(e-知園)으로 관리되던 문서가 팜스(PAMS)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은 기록원의……

정정하겠습니다.

PAMS 방법으로 유지되는 기록원의 시스템 차이 때문에 검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 결과도 오늘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들은 정상회담록을 찾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등의 중대한 상황에서 즉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오늘 이 사실을 보고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상까지 그 기간 동안의 열람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윤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민주당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진하 선배께서 경과 보고한 부분 대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하나 야당의 주장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라기록관의 담당자들이 새누리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서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한다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 전원은 이 기록원에 대해서, 기록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다.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은, 물론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완벽하게 했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후에 여당은 우리 황진하 위원 말씀처럼 대화록을 찾지 못했으니 잠정 중단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토의한 다음에 다음 열람 개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는 노력은 추가로 하되 지금 찾아진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즉시 열람을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자료가 왔으니 열람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내용 중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1항의 대화록이 없다 하더라도 2항은 전혀 관계가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열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컸습니다.

새누리당은 ‘즉시 열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어제께 논의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장에서 여야 간에 기존에 확보된 자료 열람을 즉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서 일단 어제까지 확보된 자료는, 애초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다 못 찾았으니 거기서 확인 활동을 중단하고 자료 없이, 말하자면 다시 오자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찾았던 자료는 가지고 오자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찾은 자료는 가지고 와서 우리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을 하되 보관 즉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의 열람 개시 시기는 추후 양당 열람단 대표위원께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중재안이 어제 마련이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열람단 활동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회의 말미에, 그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회의 말미에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공개로 발표하도록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 관계자 외에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비공개회의계속)

(16시4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윤근 위원 위원장이 하시지요.

○위원장 최경환 제가 할까요?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 됐습니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위원 전원은 7월 22일—내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오후 2시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을 즉시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고한다.

2. 7월 22일 이전에—주말을 포함합니다—각 교섭단체의 열람위원 2인과—각각 2인입니다, 총 4인입니다—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총 4인은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하여 관련 회의록의 검색 활동을 진행한다.

3. 7월 22일 이전이라도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회의록을 검색하는 자체 노력을 계속한다.

4. 기 제출된 자료의 열람 개시는 양당 열람위원단 단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오늘 운영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합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성주	김성찬	김진태	김태흠
김현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신동우	심윤조	우윤근	윤재옥
이완영	이채익	전병헌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조명철	최경환
황진하			

○청가 위원(5인)

문정림	윤상현	은수미	진성준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입법심의관	권영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기록원			
원장	박경국		
대통령기록관장	하종묵		
직무대리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한표 류지영 이우현 이현승	김성찬 심윤조 조명철 황진하	새누리당	2013. 7. 11
백군기 장하나 최동익	박남춘 박범계 우윤근	민주당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박완주·양승조·김제남·박수현·김성주·김경협·전순옥·이인영·최동익·최규성·이목희·부좌현·인재근 의원 발의)
7월 10일 회부됨

○자료 송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국

가기록원 보관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사본

(2013. 7. 18 대통령(국가기록원) 제출)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송부됨